

영문판 한옥 소개책 ‘Korea Style’펴낸 한일주부 김은수-이와다테

“절제된 자연미와 공간 활용 한옥의 멋이 한국의 멋이죠”

“한국 문화에서 배운 게 많아서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었어요. 너무 익숙해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일본인 마사 이와다테 씨)

“미국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정작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몰랐어요. 이번 작업을 통해서 나의 뿌리를 재발견하게 되었답니다.”(한국인 김은수 씨)

레스토랑 컨설턴트인 일본인 마사 씨와 캘러리 큐레이터인 김은수(38) 씨가 전국을 다니며 한옥의 아름다움을 속속들이 소개한 화보집 ‘Korea style’을 펴냈다. 서양에 동양 스타일을 알리는 데 주력해 온 50년 역사를 가진 미국 터틀출판사에서 내는 책으로 미국 대중을 겨냥한 본격적인 한국 문화 소개서다.

경북 안동시 병산서원, 서울 종로구 원서동 공간사옥, 동충동 싯대박물관 등 공간물에서부터 건축가, 사업가, 의상 디자이너 등 다양한 생활인이 살고 있는 한옥 24곳이 사진작가 이종근 씨의 섬세한 앵글에 잡혔다. 건축미보다는 집안 곳곳에 숨어 있는 한국적 인테리어에 초점을 맞췄다.

김 씨 등 세 사람은 촬영이 있는 날, 섭

외한 집의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이불까지 다리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으며 2년여에 걸쳐 책을 완성했다.

“자연 친화, 간결함, 절제 같은 것은 흔히 일본적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원조는 한국입니다. 전통적이면서도 모던한 한



한국 문화의 매력을 해외에 알리는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일본인 마사 이와다테 씨(왼쪽)와 김은수 씨.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국 소품들의 멋은 물론이고 동일한 공간이 침실도 되고 거실도 되고 사랑방도 되는 건축의 유연성은 놀랍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독일인 외할아버지, 일본인 아버지, 한국인 남편을 둔 마사 씨는 그야말로 ‘글로벌리안’이다. 일본 생활 디자인 분야에서 대표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는 그는 “어느 한 곳에 묶이지 않은 ‘혈통’ 때문에(웃음) 객관적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생겼다”면

서 “한국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의 핵심은 균형과 유연성, 자연스러움”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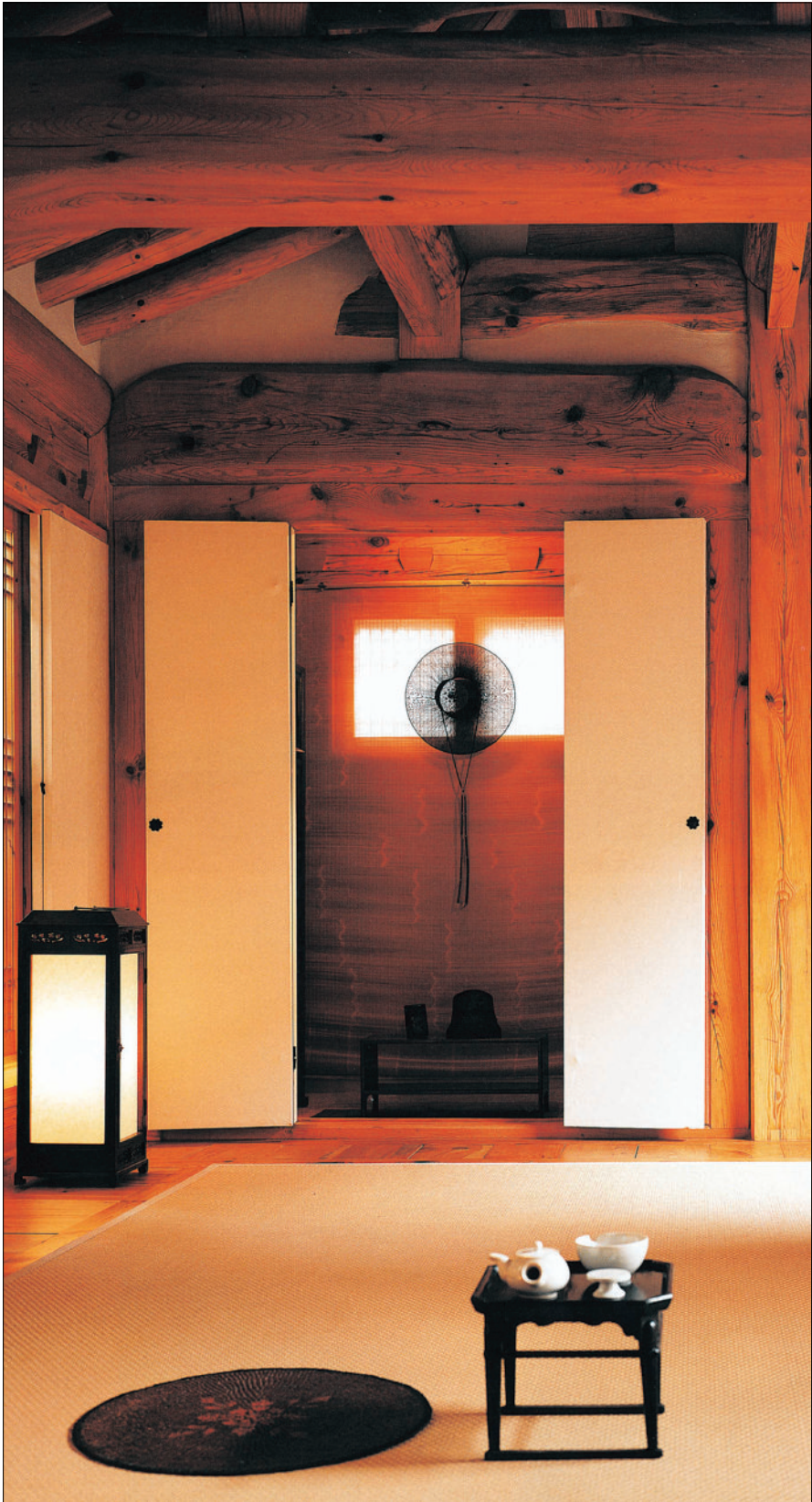
김 씨는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도미해 서양미술사를 공부한 뒤 20여 년 만에 귀국해 국내 화랑에서 만 3년 동안 큐레이터 일을 하면서 외국 서양미술을 국내에 소개하는 일을 주로 했다.

“해외 아티스트들이 전시차 서울에 오면 늘 ‘한국 문화에서 영감을 받고 싶다’고 해요. 바쁜 시간을 쪼개 박물관 공궐을 돌아다니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집이라는 공간은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문화가 담긴 산물이라는 생각에 책을 내 보자는 마사 씨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생각하는 집에 대한 철학은 언뜻 ‘갓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뜻밖에도 ‘버림’이었다.

“아무리 비싸고 예쁜 가구라도 거주장 스러우면 소용이 없습니다. 과감히 버리는 것을 이사 때만이 아니라 수시로 해야 합니다. 버릴 수 없다면 감춰야지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바로 수납공간입니다. 마치 무대에서 커튼 뒤 공간이 중요하듯 말이지요.”

허문명 기자 angelhuh@donga.com



문화유산지킴이 단체인 ‘아름지기’ 사옥.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34평 땅에 아담하게 들어선 이 작은 한옥에는 벽장 화장실 부엌 다용도실 등 쓸모 있는 공간이 알차게 있어 편리한 한옥 생활이 가능함을 알려 준다. 거실엔 통유리를 달아 건너편 대청마루 창을 통해 울타리 대나무까지 현히 내다볼 수 있다. 사진 제공 이종근 씨

“폭력에 노출된 어린이 전세계 2억2300만명”

유엔 아동폭력보고서 한국어판

유엔에서 3년간 연구해 작성한 ‘유엔 아동폭력보고서’ 한국어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폭력에 노출된 어린이가 남아 7300만 명(7%), 여아 1억5000만 명(14%)으로 추산되며 매년 2억7500만 명의 어린이가 가정 폭력을 목격하고 있다. 노동하는 어린이 2억1800만 명 중 1억2600만 명이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570만 명은 노예 노동에, 180만 명은 성 착취에 동원되고 있다.

특히 가정과 학교, 교육현장, 보호시설처럼 어린이가 보호되어야 할 장소에서 관습, 전통,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 국가 어린이들이 고소득 국가 어린이에 비해 폭력으로 사망할 위험이 2배 높으며 0~4세, 15~17세 어린이가 폭력으로 사망할 위험이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16개국만이 가정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어 여전히 아동 폭력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체벌을 금지한 나라는 106개국인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운동선수의 경우 경쟁을 부추기는 스포츠의 특성에 따라 부모와 코치들에게 폭력을 당하며 감람으로 인한 영양실조, 극단적인 훈련, 중독성 물질의 투여와 같은 문제도 드러났다. 또 1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범법행위로 사법기관에 구급돼 있으나 훈육을 핑계로 구타와 결박 등의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아동 폭력 예방을 위한 12개 권고사항을 내놓고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금지하는 법·정책 수립, 아동폭력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태도의 변화, 아동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등을 촉구했다. 유엔 아동폭력보고서 한국어판은 총 1500부가 발간돼 아동권리 관련 기관과 학계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 전통미 살린 생활 속 소품들



나전칠기 접시가 필기구를 담아 두는 용도로 쓰였다.



떡을 담았던 작은 목기에 폴라로이드 사진을 넣으니 훌륭한 액자가 되었다.



따뜻한 재질의 나무판 위에 차가운 느낌의 스틸 세면대가 대비를 이루는 화장실 인테리어.



작은 용기를 녹차나 양념을 담는 데 쓰면 냄새도 나지 않고 내용물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 단신

재혼 가정 대상 ‘1박 2일 캠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박배희)는 재혼을 앞둔 남녀 또는 재혼 가정의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마음 되기 재혼가정 1박 2일 캠프’를 운영한다. ‘결혼 속의 나를 돌아본다’(이동원·가족 아카데미아 원장) ‘재혼과 나의 발견-나의 성격, 배우자의 성격’(우애령·한국현실요법연구회 교수·작가) ‘놀이로 여는 즐거운 가족상담’ ‘가족과의 의사소통 놀이’(전국재·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 소장)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12월 2, 3일이며 경기 김포시 효원연수문화센터. 무료. 02-782-3601, 031-983-0080